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축과학기술성과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정보자료연구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연구원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건설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은 고도의 예술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과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라고 하시면서 설계가, 건축가들은 사회주의 내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리며 가꾸는 미술가, 원예사라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당의 건설구상과 인민들의 리상을 반영한 설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건축설계에서의 류사성과 반복을 철저히 배격하고 건강건물, 특색건물, 령에네르기, 령탄소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마감건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건축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세계건축자료들을 더 많이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설계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당에서 최신형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설계수단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돌아보면서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설계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 문명개화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친근한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데 대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진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령도밑에 조국을 수호하고 강성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성과가 이룩될것이며 특히 전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발전되여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인민에게 실질적인 리익을 가져다주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냥 워라찓
2016년 7월 8일
비엔띠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대표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그이께 밤방 히엔드라스토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쟈스민다르 카스투리아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모하마드 니잔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특명전권대사, 오순마킨데 에드워드 돌라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들과 축하편지들이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조선신보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격동의 시기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절대불변의 충정심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온 누리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한없는 영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가다듬게 하는 력사에 기록될 행운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력사상 가장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물리치시고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하여 오늘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며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총련조직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애족애국조직으로 튼튼히 다지는데 모든 힘을 다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숨결과 발걸음을 맞추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에서 제시된 5대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고 민족교육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것이며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 동포제일주의구호 드높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동포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치도록 하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자주적운명과 통일번영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축전들은 조국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평범한 근로자들을 천리마, 만리마에 태워주시여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겨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

지난 6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만리마에 태워주시였다.

오늘의 현실이 긍지높을수록 영광넘친 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흘러온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근 70년사는 숭고한 인민관이 안아온 거창한 전변의 력사였고 평범한 근로자들을 시대의 한복판에서 당의 뜻을 받들어 위훈을 창조할줄 아는 선구자들로 키운 인간육성의 력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주체51(1962)년 1월 9일, 평양제사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조직하신 협의회에서 새 공장을 짓고 이사하자면 8월 15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서 4월 15일까지는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동무들이 제일먼저 천리마작업반의 봉화를 들었는데 천리마공장의 첫 봉화도 동무들이 들어야 한다고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충정의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협의회장에서 일군들은 공장로동계급을 천리마에 태워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하신 사랑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사실 이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비단실생산을 늘이기 위해 공장을 찾으시였다. 하지만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현지에서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사랑의 용단을 내리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로동자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면서 래일부터라도 당장 착수하여 평양제사공장을 새로 건설해줄 결심을 하시였다.

한 일군은 실이나 뽑는 공장으로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볼 때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일군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맙시다. 건설비는 공장을 다 지은 다음에 계산합시다. 로동자들에게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준 다음에 계산합시다라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협의회장에 이름할수 없는 세찬 격정이 굽이쳤다.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로동자들을 위하여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였다.

협의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시내교통문제, 주탁아소문제를 비롯하여 녀성로력이 많은 공장종업원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도 아무 걱정없이 천리마를 탈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을 천리마에 태워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없이 이어졌다.

새로 일떠선 평양제사공장이 준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52(1963)년 5월 22일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였다.

한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로동자들이 새 공장을 《비단실궁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공장을 잘 꾸리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서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책감에 모두 고개를 수그리였다.

한해전에 위대한 수령님께 그해 4월 15일까지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으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있었던것이였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조금도 나무람하지 않으시고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것이 아닌가.

문제는 공장당위원회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천리마직장이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모든 직장들이 다 천리마칭호를 쟁취하기 위하여 겯기는 하였지만 아직 천리마칭호를 받은 직장은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서운한 기색을 지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직장들에서 천리마직장칭호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조사제1직장에서부터 천리마직장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에서는 실을 뽑는 직장들이 기본이므로 그 직장들만 다 천리마직장칭호를 쟁취하면 천리마공장이 되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할수 있겠는가를 의논해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마공장칭호를 맨 먼저 수여받은 대안전기공장의 경험도 알려주시고 평양시에서는 제사공장이 천리마공장칭호를 먼저 받을 희망이 있다고 신심도 안겨주시였다. 이어 천리마공장칭호쟁취를 위한 결의내용에 반영할 조항들도 가르쳐주시였다.

저녁늦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한 녀성직장장에게 천리마직장칭호를 꼭 쟁취하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둘러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도 일을 잘해서 천리마공장칭호를 받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고 공장을 떠나시였다.

이날 몸소 촬영기를 드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수록에서 순간의 공백도 있을세라 귀중한 사진문헌들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전체 종업원들에게 침투시키고 그들을 현지교시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였다.

그후 여섯달만에 조사제1직장은 공장에서 첫 천리마직장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평양제사공장은 당창건 20돐을 맞으며 평양시에서 제일먼저 천리마공장칭호를 쟁취하였다.

경사스러운 그날 공장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주체56(1967)년 9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때에도 공장에 찾아오시였다.

불과 며칠사이에 보이라에 불을 지피고 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제사공장이 천리마공장인데 천리마공장값을 한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해방전 《평양제2감옥》이라 불리운 공장이 《비단실궁전》, 천리마공장으로, 노예나 다름없던 로동자들이 천리마기수로!

그야말로 공장도 사람도 천지개벽하였다.

이것은 당시 평양제사공장만이 아닌 온 나라의 현실이였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혁이였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간육성의 위대한 령도로 천리마시대의 거창한 변혁을 조국땅우에 펼치신 어버이수령님.

이 공장로동계급에게 베풀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새 세기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평양제사공장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끊임없이 울리도록 온갖 대책을 취해주시고도 주체98(2009)년 1월 15일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생산도 잘할뿐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지난날의 천리마공장을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대소한의 추운 날씨로 하여 죄송한 심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날씨도 가리지 않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 순간 소매끝솔이 다 닳고 색이 바랜 그이의 야전솜옷이 눈에 안겨들어 일군들은 눈물이 쏟아질것만 같아 얼굴을 떨구었다.

짧은 소매옷을 입은 조사공처녀들의 일터에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장갑을 벗지 않으시였다. 10여년세월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겪으신 고생의 흔적이 력력한 야전솜옷의 팔소매끝을 처녀들이 보면 가슴아파할것을 념려하시여 부러 장갑으로 가리우신것은 아닌지.

이 땅에 충정의 피를 끓이는 수천만 아들딸들이 있고 나라에서 생산한 비단천을 쌓으면 하늘에 닿으련만 포근한 솜옷 한벌마저 마다하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얼마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그날의 사진문헌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2009년 1월 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여 공장이 생산도 잘할뿐만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치하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음성이 지금도 귀전에 들려온다고 하시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단실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라는 공장명칭을 친필로 써주시여 크나큰 영광을 공장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못 잊을 그 나날을 다시금 되새겨볼수록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던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가 안겨와서였다.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만 새겨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생애를 잘 알수 있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애로운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믿음이 가고 정이 가는 공장의 로동계급에 대한 기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조사현장에서 비단실을 뽑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처녀조사공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지난 70일전투기간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제일먼저 수행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는 자랑찬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원이 되기도 힘들지만 당원의 영예를 빛내이는것은 더욱 쉽지 않다는 자각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해주시며 그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기도 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어디를 가보아도 흠잡을데가 없고 모든것이 다 마음에 드는 공장이라고, 자신께서 최근에 돌아본 공장들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력사를 가진 공장,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온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어데 있으랴.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아쉬움이 있을세라 종업원모두를 불러 여러차례에 걸쳐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고 가시여서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사랑과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강건너 맞은편에 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로동자합숙을 부러워하는 공장로동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여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태워주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천리마시대에 이어 만리마시대에도 온 나라의 본보기로 자랑떨칠 충정의 열정으로 가슴끓이지 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천리마조선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한 우리 조국은 반드시 만리마의 나라로 자랑떨칠것이며 시대의 선구자, 영웅들의 대오는 끝없이 늘어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